

바다는 일터이자 놀이터 ... 평생을 함께한 삶의 터전



"놀러간다"고 말했던 상정마을 어머니들이 마을 앞 갯벌 바위에서 자연산 굴을 채취하고 있다. 굴은 매생이·미역과 함께 상정마을의 주요 생산물 중 하나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140여가구 250여명 사는 고금면서 가장 큰 마을 ... 송림 울창 천혜의 경관 자랑

굴·매생이·미역 해산물 풍성
충무공 유적·결궁농약 등
역사·문화유산 볼거리도 많아

조선시대 진주강씨와 이천서씨가 이주해 살며 마을을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은 고금면에서도 가장 큰 마을로, 대촌을 이루게 됐다.

상정마을은 지형이 아홉구미로 나뉘어 불린다고 해서 상구미라 했으나 아홉구미의 송림(松林)이 울창하고 마을 앞 높은 곳에 정자나무가 있어 상정리라는 이름이 붙었다. 마을을 둘러싼 오래된 소나무가 제법 운치가 있다. 송림이 우거진 모습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갈매기의 형태를 닮고 있다. 고금도가 그렇듯 상정마을 역시 리아스식 해안과 다도해로 둘러싸인 내해적 특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 마을 앞 너른 바다는 외파의 영향이 비교적 적고 양식여장을 개발하기 적합한 입지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어 마을 주민들의 생업 또한 양식이다.

마을을 둘러싼 3면이 바다로, 주민들도 주로 굴과 매생이, 미역을 양식하고 있다. 상정마을에서 키워낸 굴은 타 지역 굴과 다르다. 껍질이 두껍고 단단하다. 그러면 서도 속 알맹이는 씨알이 굵어 식감이 뛰어나고 굴의 향도 진하다. 청정해역에서 키워낸 매생이와 미역 등 해조류도 역시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왔다. 마을 규모가 큰 데다, 마을을 둘러싼 바다도 넓은 탓인지 주민들의 품도 넓다. 다른 어촌마을과 달리 낚선 이방인을 대할 때도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마을의 특성 덕분에 귀어를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

현재까지 10여 가구가 귀어해 바다를 터전 삼아 살아가는 중이다. 귀어를 하려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에 굉장히 적극적이다. 고령화되고 있는 마을에 생기를 불어 넣어줄 젊은 청년 어업인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마을 주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여기에 고금도에서도 가장 큰 마을로 역사와 탄탄한 조직력을 자랑하고 있는 만큼 상정마을은 뛰어난 문화유산도 품고 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고금도는 조선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해전을 준비한 곳이다. 상정마을에는 임진왜란 때 군비를 모금하기 위해 창단됐다고 알려진 농약단이 있다. 상정마을에서 전해져오는 농약은 일명 '결궁농약'이라고도 불린다. 당시 이순신 장군이 고금면 덕동리에 전라우수영을



하늘에서 내려다 본 상정마을의 모습. 고금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촌이다. 울창하게 뻗은 소나무가 마을을 둘러싸고 있으며, 마을 바다는 양식장을 개발하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상정마을 앞바다에서 자라고 있는 매생이가 가득이나 푸른 바다를 더 푸르게 물들이고 있다. 배를 타고 나가 양식장을 손보는 마을 주민들의 손길이 분주해보인다.

설치했을 때 군비를 모금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농약대가 멋드러진 가락으로 곳을 치면서 마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주민들로부터 현금을 받았다. 이렇게 받은 현금으로 군대와 의병들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유래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후 이 농약은 매년 음력 정월 초 3일이면 동네사람들의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인 현식제를 모시면서 펼치는 곳으로 이어져왔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모여 술과 음식을 나눴고, 웃고 즐기고 춤추는 등 온 동네가 하나 되는 전통문화로 자리 잡았다. 한때는 주민들이 이 결궁농약으로 완도군 대표 선수로 출전해 전라남도 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을 거두기도 했다. 다만, 아쉽게도 마을 전통 농약을 계승하는 데 어려

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젊은 청년들이 적고 생업이 바빠지면서 결궁농약을 계승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상정마을과 결궁농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마을 인근의 '묘당도 이충무공유적'을 한층 더 흥미롭게 둘러볼 수 있게 된다. 사적 제114호인 묘당도는 고금도에 딸린 섬으로 정유재란의 마지막 해인 1598년(선조 31) 2월 18일 이순신이 수군 8000여명을 이끌고 고하도(高下島)로부터 옮겨 진을 친 곳이다. 그 해 7월 16일 명나라의 원병으로 수군도독 진린(陳璘)이 병선 500여척으로 고금도에 도착, 묘당도에 진을 치고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전선을 이뤄 왜적의 침범을 막아냈던 유적지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갯벌 활용 체험 프로그램 개발해 관광객 유치"

김광희 어촌계장

"생동감이 넘치는 어촌마을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상정마을 김광희 어촌계장은 마을의 변화와 발전에 그 누구보다 큰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시골에 있는 어촌마을이지만 마을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싶다는 생각에서다.

우선 마을의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을 앞 너른 바다와 갯벌을 활용한 개매기 체험이나 바지락 채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여기에 마을을 둘러싼 뒷산 소나무 숲도 공원이나 산책로 등으로 개발해 외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에도 관심이 크다.

김계장은 "고금도에서 가장 크고 넓은 바다를 가진 마을이지만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게 아쉬운 점"이라며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상정마을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굴과 매생이 등 마을주민들의 주요 생산물에 고유 브랜드를 입혀 전국으로 유통시켜 주민들의 소득증대로 이뤄내겠다는 복안이다.

"청정해역에서 키워낸 굴과 매생이, 미역 등 상정마을에서 생산한 것은 믿고 먹을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언제든 시도할 수 있도록 주민들 모두 양식부터 수확, 유통



까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마을 해역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을의 변화를 꾀할 수 있었던 것은 어촌계원들을 비롯해 마을전체 구성원들의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마을에 변화를 가져오고 생동감을 불어 넣기 위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데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귀어인 출신이라고 밝힌 김광희 계장은 "귀어를 희망 하는 사람들을 적극 수용해 고령화로 노동력이 상실되고 있는 마을에 새로운 활력소를 만들고 싶다"며 "젊은 사람들이 모여 결궁농약의 맥을 잇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마을 발전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찾아오시는 길

▶ 승용차

서울 → 경부고속도로 → 서천공주고속도로 → 서해안고속도로 → 서영암TG → 강진무위사IC → 강진군 → 고금면 → 상정마을

▶ 고속버스

센트럴시티터미널(호남) → 강진버스터미널(4시간30분) → 강진버스여객터미널정류장 도보 이동(2분) → 강진버스여객터미널 승차 강진-당목-고금-강진 행(48분) → 고금여객

터미널정류장 하차 → 고금여객터미널 정류장 고금-상정행 승차(6분) → 상정리정류장 하차 → 상정마을

▶ 열차

용산역KTX → 광주송정역(1시간32분) → 송정역 정류장 좌석 02번 탑승 → 광천터미널 정류장(40분) → 유스퀘어광주버스터미널 → 고금시외버스터미널(2시간) → 고금시외버스터미널 → 상정리 정류장 하차 → 상정마을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과 도시의 건강한 만남과 상호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전라남도 지정 기관인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과 도시가 건강하게 만나 상호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의 특산물이 직거래를 통해 도시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에 귀어·귀촌하는 도시민들이 큰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의 질 높은 특산물을 위생적으로 제조·가공하여 만든 상품을 도시민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도시민 누구나 전남 어촌을 찾아 맛있는 먹을거리를 즐기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구경할 수 있도록 관광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그 외에도 1사1촌 협약 등 전남 어촌과 기업 음식점 등과의 상호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062-220-0583-0514)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센터장 임 광 희

수탈·항쟁의 역사 가난했던 섬, 물김으로 부촌 이루다



뛰어난 풍경을 자랑하는 당인마을의 항구는 완도의 물김이 모이는 위판장이 있는 물김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양식장에 가져갈 도구를 배에 싣기 위해 크레인을 움직이고 있다.

완도군 군외면 당인마을은 ‘쌀 서말을 못 먹고 시집간다’던 가난한 동네였다. 바다로 둘러싸인 이곳은 완도에서 가장 지형이 험준하고 교통이 불편한 곳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완도읍면에서 나는 물김은 모두 이곳 위판장을 거쳐 가공 공장으로 향한다. 당인마을을 떠난 물김은 마른김, 자반 등으로 변신해 우리네 식탁에 오른다. 물김을 수확하는 어민들의 손이 분주해지면, 물김이 가득 담긴 마대를 옮기는 당인마을의 크레인도 덩달아 바빠진다. 물김을 품고 있는 바다는 이곳 주민들의 삶을 바꾼 소중한 자원이다. 하지만 위대한 자연은 때로는 시련을 준다. 지난 10월 초 태풍 콩레이가 지나가면서 한참 분주해야 할 시기에 마을 주민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잠시 손을 놓고 있어야 했다.

김생욱(63) 당인마을 어촌계장은 “태풍이 와야 바다가 뒤집히면서 쟁기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된다. 태풍은 좋은 태풍이지만 시기가 좋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김 가격도 좋았는데 작황도 안 좋다고 하고 걱정이 많다”고 언급했다.

시련의 가을을 보냈지만 마을 주민들은 결실의 겨울을 맞이 위해 바쁘게 바다를 오가고 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시련을 이겨내고 미래를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당인마을의 역사가 있다.

일제강점기 때 항일 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났던 곳이 완도다. 그리고 앞서 가리포민란의 선봉에 섰던 허사겸이 바로 당인리에서 태어난 인물이다.

풍부한 햇볕에 품질 좋은 물김·전복 주 생산지
완도서 나는 물김 당인마을 위판장으로 집결
연로한 부모에 자녀들 잇단 귀향... 젊은 마을 변신 중
천혜의 풍광·역사 관광 자원화로 ‘새 소득 찾기’ 분주

1882년 가리포진(완도)에 부임한 ‘첩사’(僉使·고을 수령) 이상돈의 수탈과 학정에 주민들이 분노가 극에 달했고, 1883년(계미년) 11월 18일 자시(子時) 마을 이장이었던 허사겸이 죽음을 각오하고 허공에 나팔을 불었다.

고요한 바다 위로 퍼져나간 나팔 소리는 ‘계미민요(癸未民謠)’의 불을 지피는 신호



당인마을 선착장.



물김과 함께 전복은 당인마을의 주요 생산물이다. 전복 양식에 쓰이는 도구를 세척하고 있는 어민.

목되면서 관군에 의해 강진 병영으로 끌려갔고, 27세의 젊은 나이에 행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지난 2008년 허사겸 선생 등 8명의 뜻을 기려 위패가 모셔진 장의사(長義祠)가 세워졌고, 매년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수탈과 항쟁의 역사를 안고 있던 가난한 마을을 부촌으로 변화시킨 것은 바다, 물김이다. 부지런한 손길로 청정바다의 향에 햇살을 입힌 게 ‘성공 전략’이다.

김 계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이쪽 지역의 물김은 햇빛을 많이 본다. 부표를 뒤집으면서 김발을 노출한다. 한번 치는데 20-24일 정도 걸리는 데 햇볕에 노출이 되면 맛이 다르다. 정성이 더해지면서 질이 좋고, 빛깔도 다르다”고 이곳 물김에 관해 이야기했다.

물김은 떠났던 이들의 발길도 잡았다. 어려워진 경제 상황 속, 마을 주민들의 노력에 따라 고향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마을로 돌아오고 있다. 귀어 행렬이 이어지면서 점점 젊은 마을이 되어가고 있다.

김 계장은 “바다에 나가는 마을 최고령자가 77세다. 75세 이상도 대여섯 명 정도 되는데 75세는 정년이라고 봐야 한다. 아버지가 이제 일하기 힘들어지는 나이가 되니까 고향을 떠났던 자식들이 돌아오고 있다. 2-3년 정도 됐지만 귀어 인구가 30명 정도 된다”며 “후배 양성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발전되고 미래가 있는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인마을에는 물김이라는 대표 자원이 있지만, 이는 자연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또 다른 소득 자원도 필요하다. 당인마을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관광이다.

당인마을의 항은 뛰어난 풍경을 자랑한다. 지금까지는 생활의 터전을 오가는 곳에 그쳤지만 좋은 관광 자원으로 손색이 없다. 마을 앞뒤로 빙 둘러 있는 바다의 운치도 좋다.

근처에 둘러볼 곳도 많다. 8km 거리에 완도 수목원이 위치했고, 차로 불과 3분 거리에는 청해포구 드라마 세트장이 있다. ‘해상왕’ 장보고의 일대기를 담은 특별기획드라마 ‘해신’이 촬영된 곳으로, 주말에는 다양한 체험행사도 펼쳐진다.

천혜의 환경에 정성 가득한 질 좋은 물김 그리고 의미있는 역사까지 품고 있는 곳. 당인마을이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사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어촌뉴딜 300 공모 사업” 선정 돼 미래가 있는 당인마을 되었으면...”

김생욱 어촌계장

“발전된 당인, 깨끗한 당인 그리고 미래가 있는 당인이 우리의 꿈입니다.”

완도군 군외면 당인마을의 김생욱(63) 어촌계장에게 2018년은 고난을 넘어 미래로 가는 시간이다.

지난 10월 초 ‘가을 태풍’ 콩레이가 바람 많은 당인 마을을 휩쓸고 가면서 김양식을 하는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김 계장은 “태풍이 오면서 자연 포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태풍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김 작황도 안 좋다고 하니 걱정이 많다”고 토로했다.

당인마을에는 완도 전체 군의 물김이 한곳에 모이는 위판장이 있다. 그만큼 물김은 당인 마을의 대표적인 생산물이다. 지난 가을 거센 파도에 고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던 당인마을. 하지만 바다는 당인 마을의 오늘을 있게 한 품이자 다른 꿈을 꾸게 하는 미래다.

김 계장은 “예전에는 빈손이었던 곳이 지난 김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바다라는 큰 자원에 의존해서 부촌이 됐다”며 “최근 귀어인도 많이 늘었다. 부모 세대가 나이가 들면서 자식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 미래를 함께할 수 있는 젊은 이들이 많이 늘었다. 우리 세대는 컴퓨터도 잘 모르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활기찬 마을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이 당인마을의



현재로 자리 잡고 미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김 계장은 ‘어촌뉴딜 300 공모 사업’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김 계장은 “워낙 항이 이쁘고, 경치가 좋다. 자연을 잘 활용해 전망대로 만들고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물김을 위판하는 곳에 그쳤지만 불거리가 될 수 있고, 특산물 판매의 장도 될 수 있다”며 “항 자체의 개발도 필요하다. 큰 배들은 큰 파도가 치면 피신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관광지와 항 개발을 위해서는 뉴딜 300에 선정돼야 한다. 깨끗하고, 발전이 있는 마을 그리고 소득이 있는 마을로 어촌의 좋은 미래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찾아오시는 길

- ▶ 승용차
서울 → 경부고속도로 → 서해안고속도로(동서천분기점) → 서영암IC → 영풍교차로(월출산, 성전방면) → 신제교차로(독천방면) → 해남교차로(완도, 해남방면) → 완도군 → 군외면 → 당인마을
- ▶ 고속버스
센트럴시티터미널(호남) → 완도공용버스터미널(5시간) → 완도공영터미널정류장 도보로 이동(0분) → 완도공영터미널정류장 완도-남창행 승차(30분) → 당인하리정류장 하차 → 당인마을
- (30분) → 당인하리정류장 하차 → 당인마을
- ▶ 열차
용산역KTX → 광주 송정역(1시간 32분) → 송정역 정류장 도보이동(3분) → 02번 버스 탑승(32분) → 광천터미널정류장 하차 → 유스퀘어광주버스터미널 도보이동(5분) → 완도공용버스터미널(2시간20분) → 완도공영터미널정류장 도보로 이동(0분) → 완도공영터미널정류장 완도-남창행 승차(30분) → 당인하리정류장 하차 → 당인마을

다도해 풍광·솔숲 낙조 눈부신 '다시마 본고장'



완도는 265개 섬들이 한 폭의 그림을 완성시킨다. 맑은 공기와 탁트인 바다. 월송마을은 오염되지 않은 천혜 환경을 보유한 최고의 휴식처다.

/김진수 기자 jean@kwangju.co.kr

170여 가구 대부분 다시마 양식...2년마다 축제 열어
6~7월 수확철 온 마을이 다시마 건조장 변신 '진풍경'
명사십리해수욕장 해당화·고운 모래·얕은 수심 인기
253m 망산, 다도해 절경 감상하며 걷는 트레킹 명소

가을 바닷바람은 가을 하늘처럼 청명하다.

완도 당목항에서 배를 타고 가는 20분, 온 몸으로 달려드는 바람은 지친 마음을 씻어내듯 가슴 가득 청량감을 선물한다.

다도해의 절경이 일품인 완도, 그중에서도 평안하고 아름다운 섬 평일도는 이름처럼 평화 그 자체다. 산들이 에워싸고 있는 들녘과 바다, 느끼게 달려와 부서지는 파도를 보고 있으면 시간도 더디게 흐를 것만 같다. 특히 청정 해역으로 어족자원이 풍부해 바다낚시 적지로 손꼽히며 미역·다시마 생산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약산면 당목항-금일읍 일정한 노선은 아침 6시30분부터 30분 간격으로 하루 24회 섬과 육지를 연결한다. 하절기 마지막 배는 오후 7시 20분, 동절기는 6시 30분이다. 강진 마량-고금-약산이 다리로 연결돼 이 노선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금일읍에서 18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조그만 재를 넘어보면 월송마을이 나온다. 포물선을 그리듯 마을을 감싸안은 해

안선 위로 170여 가구가 바다를 굽어보며 살터를 일궈가고 있다. 주민 대부분은 다시마 양식을 주업으로 삼는다.

평일도는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다시마의 본고장. 월송마을은 연간 600t을 생산하고 있다. 일조량이 풍부하고 큰 파도가 적은 지리적 특성과 다시마의 생육 특성이 잘 맞기 때문이다. 동네마다 빈 땅에 굵은 그물을 씌워 다시마 건조장으로 사용하는데 수확철인 6-7월에 찾아오면 섬을 뒤덮은 다시마가 진풍경을 연출한다. 농심 라면 '너구리'에 들어있는 다시마가 바로 이곳 평일도 산이다.

금일읍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월송마을은 논밭 수익도 높아 부촌으로 손꼽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지금은 논지의 95%가 다시마 건조장으로 사용되는 등 옛 이야기가 된지 오래다. 큰 어장지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황무지인 탓에 조업면적이 좁은 것도 마을의 고민거리다.

다시마는 11월에 씨를 뿌리고 12월 중순부터 이듬해 1월까지 수확 작업을 거쳐 6-7월에 수확한다. 이 시기에 맞춰 격년제

로 다시마 축제가 열리는데 물려든 일손과 축제 방문객으로 섬 전체가 들쭉날쭉하다. 주민들은 체육대회와 노래자랑으로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다시마의 우수성을 알린다. 관광객들은 다시마 채취와 건조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이 마을을 이야기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솔숲. 2백~3백년 된 소나무 2천 그루가 1.2km 해안선을 타고 줄지어 서서 해풍을 막고 있다. 이곳 풍경은 해가 진 뒤부터가 진짜다. 수평선 붉은 기운 위로 밤의 푸른 색감이 겹쳐지며 소나무 위로 달이 떠오른다. 그 모습이 오죽 아름다웠으면 마을 이름을 월송이라 지었을까. 솔숲은 군 보호림으로 지정돼 완도군이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취사 행위는 일체 금지되고 있다.

솔숲 테크길을 걷다 양식 시설물 손질에 바쁜 40대 귀어 부부를 만났다. 이름 밝히기를 꺼려한 부부는 서울에서 내려와 정착한지 올해로 5년째. 귀어 생활을 묻자 "나고 자란 고향이었던 터라 정착이 수월했다"며 "공기 좋고 사람들도 좋아 도시에서 사는 것보다 수임이나 여러면에서 더 낫다"며 수줍게 웃었다.

또 하나의 명소는 솔숲 너머로 펼쳐진 명사십리 해수욕장. 평일도 동쪽 사동리에서 서쪽으로 이르는 3.6km에 달하는 백사장으로 고운 모래, 얕은 수심으로 여름철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경사가 완만해 어린이들이 놀이에도 아영하기에도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해당화가 많이 피는

곳이라 금일해수욕장이라는 이름보다 '금일 해당화 해변'으로 많이 알려졌다.

주변에 민박·펜션 시설이 갖춰져 있고 해수욕장 한가운데에 해변 관리소, 그 옆으로 샤워장이 있다. 모래밭 뒤로는 몽골 텐트촌이 있는데 한 여름 성수기에 하루 이용료 2만원을 받는다.

평일도 바다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은 망산이다. 253m의 높이 않은 산으로 산책하듯 오르며 다도해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일품 트레킹 코스다. 산림청 주관으로 지난해부터 산 7부 능선에 4~5km 둘레길이 조성되고 있다.

마을 이장 한인주씨는 "신평·동성·월송 마을 3곳에 오르는 길이 있고 맑은 날엔 저 멀리 정산도·고흥·여천·장흥·제주도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며 "해질녘 노을 지는 풍경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만큼 아름답다"고 말했다.

속이 들여다 보이는 오염되지 않은 바다, 그림 같은 다도해의 풍광은 낚시인들의 천국이기도 하다. 해류가 좋아 굳이 먼 바다까지 나가지 않아도 어종이 풍부해 어디에서나 낚시대를 드리우면 찌릿한 손맛을 볼 수 있는 천상의 낚시터다. 직접 잡은 감성돔으로 뜬 생선회와 뜨끈한 라면국물이 술 한 잔이면 신선이 부럽지 않다.

여행이 주는 소박한 행복은 여유, 섬에 자발적으로 간하는 선택은 어떠한가. 저 멀리 모여 앉은 섬 사이로 양식장 부표가 한가롭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

찾아오시는 길

▶ 승용차

서울 → 경부고속도로 → 서천공주고속도로 → 서해안고속도로 → 서영암TG → 강진무위사IC → 강진군 → 고금면 → 약산면 당목항 → 일정한 → 금일읍 → 마을

▶ 고속버스

센트럴시티터미널(호남) → 녹동버

(15분) → 동송항(50분) → 택시로 월송마을 이동(9분)

▶ 열차

용산역KTX → 순천역(2시간21분) → 순천역 정류장 → 버스터미널정류장 하차(10분) → 순천종합버스터미널 도보 이동(4분) → 녹동버스공용정류장(1시간15분) → 녹동항(15분) → 동송항(50분) → 택시로 월송마을 이동(9분)

“대대손손 옛 인심 지켜가는 예의바른 마을 풍력발전단지 유치·연륙교 건설 숙원사업”

김민수 어촌계장

“깨끗한 환경, 수려한 풍경, 넉넉한 인심...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곳입니다. 관광도 좋고 귀촌도 좋고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수(53) 어촌계장은 학창시절 몇 년을 빼고는 줄곧 고향을 지켜온 이 마을 토박이다.

금일에서 가장 부촌이었던 마을의 흥망을 지켜본 그는 옛 부흥을 찾기위해 오늘도 고민이 깊다.

해송숲·명사십리해수욕장 인기에 힘입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마을은 고금·신지도에 연륙교가 놓인 이후 관광객이 줄어들고 고령화로 인해 고된 일을 할 수 있는 일손은 한정되어가고 있다.

김계장은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선 육지와 왕래를 위해 배를 타는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풍력발전단지를 유치해 연륙교 놓는 것을 숙원사업으로 꼽아들고 고령화로 인해 고된 일을 할 수 있는 일손은 한정되어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귀촌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고 올해도 3가구가 새롭게 정착을 시작했지만 맑게 일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 어촌계장은 “바다에서 사는 사람에



게 어장은 곧 생존을 의미한다”며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 나가겠지만 행정적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마을자랑을 해달라고 하자 그는 “대대로 추진하고 있다. 마을 수임이 늘고 정착하는 사람이 늘어나 어촌계도 다양한 일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황무지가 태반인 어장 면허지 위치를 옮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올해 승인 심사에서 탈락했다.”

끝으로 그는 “격년제로 열리는 다시마 축제가 내년엔 열린다”며 “하루전에 오면 솔숲 낙조를 보고 이 고장 산해진미도 맛보며 전야제의 여흥을 즐길 수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



6월부터 채취를 시작하는 다시마는 뜨거운 햇살과 지열을 이용해 건조한다. 이 시기의 섬은 온통 다시마로 뒤덮인 진풍경을 연출한다.



2백~3백년 된 소나무 2천 그루가 1.2km 해안선을 타고 줄지어 서서 해풍을 막고 있다. 소나무 위로 달이 떠오르는 모습이 아름다우며 마을 이름의 유래가 됐다.

청정바다 품은 어촌...눈길마다 절경, 발길마다 힐링

깨끗한 바다서 자란 풍부한 해산물
 금당미역·문어·장어 인기만점
 별미 썸뱅이 맛에 반하고
 배 타고 둘러보는 '금당 8경' 일품
 천혜자연 즐기려는 등산객 발길 꾸준
 둘레길 완성되면 머무는 관광 기대

가을햇살이 가득한 날, 청정바다 완도군 금당면 울포마을을 찾아가다. 광주에서 화순을 지나 배를 타기 위해 도착한 곳은 장흥 노력항. 주민과 몇몇 여행객, 차를 태운 배가 출발을 알리며 바다로 나아간다. 물비늘이 비치는 가을바다는 유난히 아름답고 근데근데 쪽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이들도 보인다.

섬에 도착해 이른 점심을 먹었다. 금당면사무소 앞의 중국집에서였다. 풍성한 해물이 듬뿍 담긴 짬뽕밥은 입맛을 돋웠다. 마을 앞바다에서 잡아올린 것일까 금금해하며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주인 할머니가 알은 체를 했다. 커다란 고무대야에 가득 담긴 해물을 손질중이었다. "짬뽕밥에 든 해물이 싱싱하고 맛있다. 직접 잡으신 거냐" 했더니 할머니가 말했다.

"어디서 오셨소. 청정해역인데 맛있게 수밖에 없제. 음식에 들어간 건 당연히 우리 앞바다에서 잡은 것이제. 무공해라 얼마나 맛이 좋은디. 볼 것도 많아. 금당 8경이라고. 배타고 나가서 보면 장관이여. 흥도에 다녀온 것보다 좋다는 사람도 있당께."

울포마을은 1640년 조선 인조 때 고흥에서 전주 강씨가 처음으로 입주해 형성됐다. 마을 뒷산인 공산을 독수리가 넘어왔다고 해 수리넘어로 불리다 다시 공산을 타고 넘어다 고해서 '차우리' (車牛里)로도 불렸고 차우마음은 울포리의 출발이기도 하다. 금당면 면소재지인 울포마을의 거주 인구는 106가구 224명이며 어촌계원은 45명이다. 이중 귀어·귀촌 인구는 27가구로 아직은 그리 많지 않다.

11월은 한참 미역을 다듬어 내다파는 시기다. 마을 특산물 중 하나인 미역을 가공하는 금당수선에 들렀다. 지금은 자동화도 많이 됐는데 이곳에서는 직접 일일이 손으로 손질하고 있었다.

"요즘에는 모든 걸 기계가 하제. 우리는 세심하게 일일이 손으로 줄기를 가르고, 또 안좋은 것은 버리고 하니가 품질도 좋아. 인건비가 많이 들기는 하지만 그렇게 공들여 손질해서 팔면 집에서 음식하는 사람은 훨씬 맛있게 요리할 수 있제. 금당 미역은 오래 끓여도 안 퍼져. 굴 넣고 기려도 맛있고." 부지런히 손을 놀리며 미역을 다듬는 할머니의 말이다.

울포 미역은 깨끗한 바다에서 자란 미역을 맑은 바닷물로 수시로 씻어내며 가공하는 게 특징이다. 울포마을 전체에서 생산되는 분량은 480 t, 톳과 다시마 김 등을 합하면 1161t 수준이다.

울포마을의 또 다른 특산물은 문어와 장어다. 어느 지역보다 청정해역인데다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의 질도 달라 최상의 생산물을 얻을 수 있다. 연중 바다에 나가 잡을 수 있는 문어와 장어 수확량은 각각 42 t, 56 t 수준으로 문어는 연간 20억원, 장어는 3억원의 수익을 올린다. 양식으로 키우는 돌돔 역시 인기가 높다.

마을에서 만난 주민들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또 하나의 특산물은 붉은빛 모양을 한 물고기 '썸뱅이'였다. 마을에서 썸뱅이를 손질하고 있는 어르신을 만났다. 집에 있는 작은 배로 아침 일찍 바다에 나가 갓 잡아올린 싱싱한 것들이었다.

"썸뱅이는 다른 곳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고기예요. 구워 먹어도 맛있고, 매운탕으로 해도 맛있제. 무엇보다 비린내가 하나도 없어요. 도시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한번



'코끼리 바위' 등 기암괴석으로 유명한 '금당 8경'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특산물이 즐비한 완도군 금당면 울포마을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먹어보면 맛에 반할 겁니다."

울포마을에서 나온 자란 신용원 할아버지는 인심 좋고 정감 있는 마을 자랑까지 하며 썸뱅이 소개에 열을 올렸다.

울포마을의 대표 관광자원은 '금당 8경'이다. 기암괴석으로 수만년간 파도와 풍우로 인해 신비로운 형상을 지니게 됐다. 생김새에 따라 '초가바위', '코끼리 바위', '남근 바위', '사봉세우' '병풍바위', '부채바위', '스님바위', '교암풍경' 등으로 불리며 바다로 나가 배를 타고 둘러보면 온전히 만끽할 수 있다. 울포항 바로 앞바다에서도 볼 수 있는 스님바위는 고고한 자태가 인상적이다. 또 마을 위 제각에서 바라보는 푸른 남해 바다도 눈을 시원하게 한다.

울포마을은 다른 마을처럼 체험 시설은 아직 잘 갖춰져 있지 않지만 천혜의 자연 환경을 즐기려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현재 '둘레길'을 조성중으로 전체 구간 중 3분의 1 정도가 완성된 상태다. 둘레길이 완성되면 '1박 2일' 머물다 가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포마을은 아직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소박한 동네다. 한가로이 머물며 사색에 빠지기 좋다. 완도에서 가장 먼저 LPG가 들어오는 등 숙박시설도 깨끗하고 환경도 좋다.

항구에서 돌아오는 배를 뒀다. 붉은 어구 사이로 쪽배를 놓고 고기잡는 이들이 보인다. 저렇게 깨끗한 바다에서 잡아올린 어류들이 우리 밥상에 놓일터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울포마을의 특산물인 미역을 가공하는 모습.

찾아오시는 길

▶ 승용차

서울 → 경부고속도로 → 논산천안고속도로 → 순천완주고속도로 → 무평로 → 남해고속도로 → 고흥IC → 녹동 → 금당면 → 우두항 → 울포항 → 울포마을

▶ 고속버스

센트럴시티터미널(호남) → 녹동버스터미널(호남) → 금진항

정류장(24분) → 금진항(15분) → 울포항 → 울포마을

▶ 열차

용산역KTX → 순천역(2시간21분) → 순천역 정류장 → 버스터미널정류장 하차(10분) → 순천종합버스터미널 도보이동(4분) → 녹동버스터미널(1시간15분) → 녹동항(15분) → 울포항(25분) → 울포마을

“아직 관광지 개발 안돼 자연 속살 그대로 만끽 주민 한마음으로 마을 최대자산 청정바다 유지”

정승훈 어촌계장

“저희 마을은 아직은 관광지로 개발되지 않은 곳입니다. 하지만 청정 자연을 보유하고 있어 그만큼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완도군 금일면 울포마을 정승훈 어촌계장을 만난 곳은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하는 찻집이었다. 주민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정계장은 울포마을의 경우 북쪽은 장흥, 남쪽은 녹동 등 연계 지점이 많아 관광객들이 접근하기도 좋다고 말했다. 함께 한 이웃들 역시 그 어느 곳보다 깨끗한 바다에서 잡아올린 맛있는 먹을거리가 많은 곳이라고 자랑에 가세했다.

군의원을 지낸 정계장은 무엇보다 마을 환경과 주민들의 어업활동 환경을 개선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데 관심이 많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특산물 생산·가공하는 시설들도 늘어 마을의 부를 창출하고, 마을을 찾는 관광객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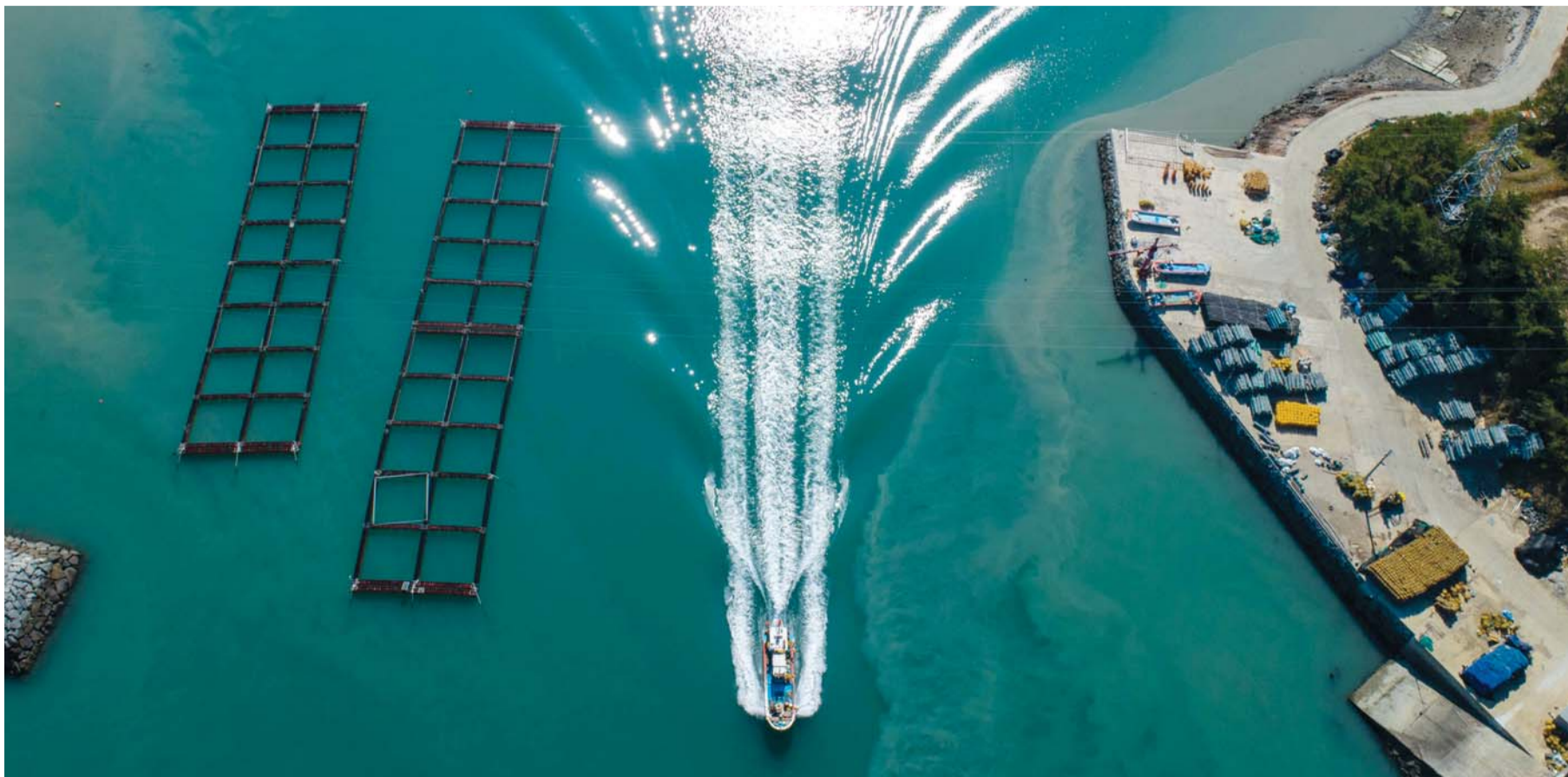
주민들은 무엇보다 마을의 최대 자산 중 하나인 청정 바다를 유지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바쁜 시간에도 짬 내 자율 관리 공동체를 만들어 불가사리 제거 등 바다정소를 꾸준히 하고 있다.

“저희 마을에서 생산되는 미역은 그 어디다 내놓아도 빠지지 않습니다. 청정바다에서 저 좋은 플랑크톤을 먹고 자라는 장어나 문어도 맛이 없을 수가 없지요.”



정계장은 최근 둘레길이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늘어나기 시작한 등산객들에게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현재 3분의 1 정도 조성된 둘레길이 모두 완성되면 둘레길을 찾아오는 이들이 더 늘어날 겁니다. 둘레길을 걸으며 바라보는 남해 바다는 일품이지요. 하지만 쓰레기를 너무 많이 남기고 가세요.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는 것은 다같이 힘을 합쳐야 하는데 말이죠.”

정계장은 체험마을 등 관광 쪽 인프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 앞으로 차근차근 준비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시설 확충 등이 이뤄져 관광객의 접근성도 더 좋아지길 바란다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완도군 금당면 울포마을의 청정바다에서는 문어, 장어, 썸뱅이 등 다양한 어류가 잡힌다.